

제10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다시 영혼 구원에 헌신하자”

美 남가주사랑의교회서 현지 시간 8~11일 일정으로 진행 중

제10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가 미국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현지 시간 지난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예수, 구원의 그 이름!”(Jesus No Other Name(행 4:12)이라는 주제로, 500여 명의 전세계 선교사가 족과 약 2000여 명의 남가주 성도들이 참여해 열리고 있다.

8일 저녁집회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사들이 있어서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가 불들린 바 되어 가지 않나 생각된다”고 하면서 선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도전했다.

그는 “저는 한국에서 왔지만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예전에 기도를 하는데 한국교회는 심장이 멎었는데, 이를 놓고 다시 기도하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요인 중 하나는 북한이고, 다른 하나는 디아스포라라는 감동을 받았다”면서 “교회를 지키고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선교사들이 명령하면 한국교회는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부흥을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어서 모이게 된 것”이라면서 “코로나 기간에 많은 한국교회와 문을 닫았지만, 지금 기도 모임이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진행되고 있다. 성도들 안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다.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채워지리라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을 주셨는데 북한에 앞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질 줄 믿는다.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막힌 닫을 열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면서 “이 분단의 나라 조국에 수많은 기도가 쌓이고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적 통일을 이루실 줄 믿는다”고 했다.

황 목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 목사, 집사, 권사 등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의 삶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다. 성령께서 임하면 자



“한국 선교사들 너무 중요하다” 제10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예수, 구원의 그 이름!”(행 4:12)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사진은 대회장에서 참석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토마스 멩 기자



황덕영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튀르키예 서헬렌 선교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녀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전략

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마지막 시대에 선교를 이어가는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디아스포라의 모든 성도

들과 선교사들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간증을 한 튀르키예 서헬렌 선교사는 튀르키예에 자신이 난 후 구조 활동을 했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영어와 한국어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헌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아이들도 경계를 했지만, 우리가 끊임없는 사랑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면서 “그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사랑의 진짜 주인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지의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열매를 볼 수가 없다”면서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던지 선교지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1988년 처음 시작된 이래 늘 사카이 휘튼대학교에서 개최됐으나 남가주에서는 지난 2016년 아주사퍼 시립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게 됐다. 통상 4년마다 개최해 오던 대회는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6년 만에 열렸고, 앞으로 2년마다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열리게 된다. ▶관련기사7면 토마스 멩 기자

영 김美 의원 “의회가 탈북자 목소리에 계속 귀기울도록 할 것”

북한자유주간 맞아 미 의회에서 ‘탈북민들과의 라운드테이블’ 진행

제21차 북한자유주간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9일(현지 시간) 오전 10시 30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주관으로 ‘탈북민들과의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개최됐다.

소위원장인 영 김 연방하원의원은 이날 탈북자들을 초대해 자리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회가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들이 증언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영 김 의원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받았던 고통과 탈북하는 과정, 또 이후의 정착까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였을지 상상하기 힘들지만, 항상 같은 고통을

나누면서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회에서 증언한 탈북자들은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하는 것만큼 북한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가족 9명을 목선에 태우고 탈북에 성공한 김이혁 씨,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영 씨는 자신들을 깨우친 것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정보였다고 강조했다.

김이혁 씨는 “북한 외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여전히 일가족을 데리고 북한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면서 “지금도 북한에서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진실을 바로 알 수 있

도록 지속적인 정보 유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씨는 자신이 김일성종합대학교에 재학하던 시절에 이미 한류드라마 애청자 집단이 학교 안에 생길 정도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았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북한 엘리트 집안에서 자라 김일성에 충성하겠다는 다짐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바꾼 것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었음을 증언했다.

또 김지영 씨는 이날 증언 중에 북한 인민들의 어려운 삶은 안중에도 없고 한국 부자들의 삶을 따라하기 원했던 북한 엘리트 계층 안의 이기심과 허영심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일성종합대 학생들은 충성분자들만 있는 줄 알았지만 한류에 열광하고 인민의 실질적인 삶에는 관심없는 그들의 모습이 저의 생각을 바꾸게 한

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김지영 씨는 “이미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고 있다. 종종 친척 중에 저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의 요청하는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하다”고 알렸지만 강제복송이라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독약을 준비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한 과정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하기도 했다. 김지영 씨는 “강제복송은 단순히 벌금을 내고 벌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잡혀가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라고 밝혔다.

여러 루트를 통해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활동을 해 왔던 장세윤 거레일통일연대 대표도 이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정보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북한의 많은 친



현지 시간 9일 미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탈북자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영 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우측 4번째)과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위해 참가한 탈북자들 및 수잔 솔티 자유북한연대 대표(우측 3번째)가 기념촬영을 했다. ©김대원 기자

구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모두 자유민주제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투쟁하고 있 세상을 세우기 위해 뜻을 모았고 북한에 다”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

Loving Jesus, Sharing Jesus!

지구촌교회는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목장교회를 통해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더 나아가 평신도선교사로서 가정, 직장, 지역 공동체의 변화와 지구촌 선교네트워크 확장에 헌신할 것입니다.

“기독일보 창립 13주년을 축하합니다.”

지구촌교회
GLOBAL MISSION CHURCH

수자채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 1로 48번길 48(신봉동) T 031-264-9191

원로목사 이동원 담임목사 최성은

분당채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154번길 6(구미동) T 031-710-9300

필그림하우스
경기도 가평군 북면 가회로 1862

GMV채플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74번길 19

경기대채플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구리지구촌채플
구리시 이문안로 86 5-6층

www.jiguchon.or.kr